

왕실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

- 『종반행적(宗班行蹟)』에 담긴 15세기 관각문학의 일면 -

구슬아**

- I. 종친, 그 제한된 삶에 대하여
- II. 15세기 창작 종친 묘도문자의 현황
- III. 종친 묘도문자의 관각문학적 특징
- IV. 왕실의 인물을 바라보는 '15세기'의 시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종반행적(宗班行蹟)』에 수록된 15세기 종친들의 묘도문자로부터 관각문학적 특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종친은 군왕의 부계 친족이자 군신관계에 놓인 특수한 신분이다. 『종반행적』에는 이러한 종친들의 전기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5세기 종친들의 묘도문자는 서거정, 임사홍, 홍귀달, 남곤 등 유력 관각문인들이 창작하였는데, 작품 대부분이 이들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아 자료적 가치가 높다.

『종반행적』에 수록된 15세기 창작 종친 묘도문자의 관각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작품에는 고귀한 왕실의 혈통에 대한 찬양과 존모가 담겨 있다. 특히 종친의 세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세종과 성종대의 태평성대를 남달리 칭송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5세기의 종친들이 세종과 성종대의 문운 융성기를 함께 견인해 온 관각문인들에게 태평성대를 회상하게 하는 인적 증거로 기능한 결과이다.

둘째, 종친을 대하는 군왕의 내밀한 사적 감정을 거침없이 묘사하고 있다.

* 이 연구는 202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신임교원 정착연구비)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특히 부왕 혹은 형제로서 군왕의 가족애를 부각시키는 일화를 삽입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적 일화의 삽입이 만백성의 너그러운 부모로서 군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종친들은 독서에 침잠하거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고,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타고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면모를 드러내는 특수한 일화가 아닌 정형화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왕실의 위계 질서에 순응하며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규범적 종친상(像)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15세기의 관각문인들은 종친들의 모범적 삶을 통해 조선의 태평성대를 증명하고 회상한다. 그러나 왕실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비판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종친들의 묘도문자 창작은 도외시하거나 역사적 평가 자체를 외면한 아쉬움도 낳았다.

핵심어 : 조선전기, 종친, 묘도문자, 종반행적(宗班行蹟), 관각문학

1. 종친, 그 제한된 삶에 대하여

군왕의 부계 친족인 ‘종친(宗親)’¹⁾은 전제왕권 사회의 특수한 신분으로서, 높은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들은 사적으로는 임금과 부자-형제관계에 놓인 혈연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군신(君臣)의 상하관계에 놓이는 인물들이다. 『시경』에서는 종친들의 존재를 ‘성(城)’에 비유하며, 나라가 편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이들이 왕실을 익위(翼衛)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²⁾ 이 말에는 종친들이 고귀한 군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 이면서, 역설적으로 군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 있다.

1) 종친의 범주에는 군왕의 적자인 대군(大君)과 서자인 군(君: 대군과 구별하여 이들을 ‘왕자군’으로 지칭하기도 함), 세자나 대군의 적장자 및 그들의 손자, 왕자군의 아들 및 손자 등을 가리킨다. 『經國大典』 『吏典·京官職』, <宗親府>.

2) 『시경』 『大雅』, <板>, “懷德維寧, 宗子維城. 無俾城壞, 無獨斯畏.”

조선의 종친들은 국가의 각종 의례에 참석하여 국왕을 시위·배행하거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에 참여하며, 국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왕명의 전달과 경관 관서의 장을 역임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³⁾ 왕실에서는 종친들에게 이처럼 의례적 차원의 명예직을 부여할 뿐, 건국 직후부터 다양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 군왕에 대한 도전의 싹을 근절하였다.

특히 종친들의 삶의 방향은 군왕의 적자(嫡子) 여부, 그리고 세자-사왕(嗣王)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이하게 갈린다. 세자가 되지 못한 대군이나 후궁 소생의 왕자군은 혼인과 동시에 궁궐 밖으로 나가 생활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암묵적 감시하에 ‘정치적 금고’에 가까울 정도로 행동의 범주가 제한된다.⁴⁾ 대소신료들과의 사적 왕래를 자제하는 한편, 왕실에서는 종부시(宗簿寺)를 통해 그들이 왕실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호 규찰케 하였다.⁵⁾ 요컨대 그들은 국왕에게서 파생되어 철저히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형태’로 관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⁶⁾ 그러한 관계로 그 삶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와 졸기, 그리고 몇 편의 필기나 묘도문자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종친들의 삶은 어느 임금대이나 존재했지만 자유로움을 속박당한,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은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언제나 유효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태종은 대군으로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경쟁 관계에 있던 형제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조선의 제3대 왕위에 올랐고, 세조 역시 단종을 폐위시키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에게 호응하던 종친의 과거 응시[赴試]를 허용하고 그들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하였다.⁷⁾ 성종 역시 왕위 등극 이후 종친 부시를 장려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는 상례가 아닌 관계로 신료들의 반

3) 원창애, 『조선왕실의 계보와 구성원』, 세창출판사, 2018, 129~131면.

4)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1998, 206~208면.

5) 원창애, 위의 책, 2018, 197면.

6) 강제훈, 『조선전기 墓誌銘에 나타난 宗親職制 운영』, 『서울과 역사』 제7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1, 53~54면.

7) 한중희, 『朝鮮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한국학논집』 제2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5, 190~191면. 세종~단종대에는 종친의 정치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억제되었다가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많은 종친이 고위직에 등용되었다. 세조대에 이처럼 종친이 대거 중용된 원인으로는 세조의 무단적 성격 및 통치관, 왕권강화를 위한 기존 공신 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같은 논문, 193면.

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골육으로서의 은혜는 친성이니, 마땅히 융숭히 해야지 줄이지는 말아야 하며, 마땅히 후하게 해야지 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공손히 생각건대, 태조와 태종께서는 기강을 수립하고 펼치시는 가운데 진선(鎭選)과 관련된 조목에 대해서는 ‘종친에게는 정사를 맡기지 말라.’라고 하여,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그러한즉 조종의 뜻을 알 만합니다. (...) 그러나 그간 돈독한 우애로 말미암아 병권을 전담하게 하거나 혹은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밀줄 강조 필자]. 이는 진실로 상법(常法)과 상경(常經)이 될 수 없는 것인즉 어찌 그것이 만세의 법이 되겠습니까?⁸⁾

성종대의 대사헌 한치형(韓致亨)이 올린 시무 상소의 일부이다. 여기에 서도 드러나듯, 종친들의 삶은 군왕과 ‘골육의 관계’, 즉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선전기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⁹⁾

본고는 바로 이러한 종친의 삶의 정치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이들의 삶을 대상으로 한 묘도문자를 ‘광의의 관각문학’으로 보고, 이를 통해 15세기 관각문학의 또다른 특징을 유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관각문학은 홍문관, 예문관 등 관각의 문인들이 임금의 명에 따라[奉敎撰] 혹은 관각의 정치적 업무와 관련된 공적(公的) 목적에 따라 찬술하여 정치적 효용을 추구하는 성격의 글로 정의된다. 이들은 문물제도의 정비, 조선의 문운 및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부심과 찬양을 관각문학 속에 표출하였다.¹⁰⁾ 관각의 문인들이 찬술하였더라도 공적 목적성이 결여된 경우는 엄밀히 관각문학이라고 볼 수 없다.¹¹⁾ 이에 따르면 종친을 대상으로 한 묘도문자의 상당수는 ‘공적 목적성’이

8) 『성종실록』 권10, 1471년(성종 2) 6월 8일, “司憲府大司憲韓致亨等上疏曰：(…) 骨肉之恩，天性也，當隆而不當殺，宜厚而不宜薄者也。(…) 恭惟太祖太宗立經陳紀，而於鎭選之條，乃曰：‘宗親勿任事’以盡親親之道，則祖宗之意，亦可知矣。(…) 而間因友愛之篤，或使之典兵，或使之赴試，固不可以爲常法也。不可爲常者，其萬世之法乎?”

9) 이규철, 『임영대군과 오산군을 통해서 본 조선초기 종친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제20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6면.

10)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제8호, 국문학회, 2002, 42~45면.

11) 신복호, 『관각문학의 개념과 그 유형 및 특성』, 『한국한문학회』 제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관각 산문의 개념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임금의 명에 따라 찬술하거나 관각문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자가 창작했다는 점, 이를 통해 조선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¹²⁾ 일정 부분 공적·정치적 특성을 부여받는다고 판단된다.

묘도문자는 묘주의 삶의 행적 가운데 후대에 전할 만한 내용, 혹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형성을 띤다. 특히 군왕이나 종친과 같은 왕실 인물의 묘도문자는 그 생의 방향성이 일정하고, 특수한 일화나 인품 등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품 특유의 미학과 정치성이 발휘되기도 한다.¹³⁾ 이은영은 조선시대 군왕의 행장과 제문 등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들의 전형성이 근대적 의미의 문학적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취택된 일화들이 보이는 방향성이나 서술상의 특징, 감정·이념·표현·효용이 긴밀하게 결합된 묘도문자만의 문학적성을 제대로 살펴 봐야 함을 역설하였다.¹⁴⁾

주지하다시피 15세기는 조선의 정치 및 문화, 각종 전장제도 등이 완비·정착되던 때이다. 조정 각 부처 정비가 완료되는 한편 신료들에 대한 위계적 질서 준수가 본격적으로 요구되었다.¹⁵⁾ 그와 동시에 세종-세조대 『명황계감(明皇誠鑑)』의 편찬 및 주해, 성종대부터 연산군대까지 『역대군신명감(歷代君臣明鑑)』 및 『후비명감(后妃明鑑)』의 편찬과 2차례에 걸친 출간, 성종대에 김종직이 성종의 명을 받고 편찬한 <내반원기(內班院記)> 등을 통해 드러나듯, 비빈들로부터 내관들에 이르기까지 군왕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인물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왕실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작된 관각문학 작품 속에는 왕실 인물들이 정해진 직분을 따르고 사적인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왕화를 보좌하고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천명되어 있다.¹⁶⁾

158~161면.

12)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3) 이은영, 『조선시대 군왕 행장의 찬술 방식과 미의식』, 『동방한문학』 제49집, 동방한문학회, 2011, 251면.

14) 이은영, 『祭文, 양식적 슬픔의 미학』, 태학사, 2004, 269~272면.

15) 이 시기 정치 제도의 완비와 관각문학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구슬아,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官廳 題名記) 창작의 시대적 맥락』, 『국문학연구』 제36호, 국문학회, 2017 참조.

16) 구슬아, 『草創과 潤色,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글쓰기 방식 연구』, 『규장각』 제53집, 서울대학

그렇다면, 왕실의 일원이자 군왕의 최측근으로서 제한된 삶을 살았던 종친, 특히 정치적 상황이 복잡다단했던 세조-성종대를 살아낸 종친들에게 그 시대는 어떤 삶의 자세를 요구했을까?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누가 남겼고, 어떤 일화들이 그들이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채택되었을까? 마냥 사사로울 수만은 없었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1)작가가 밝혀진 15세기 창작, (2)종친 대상 묘도문자의 문학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 찬술의도와 서술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관각문학적 가치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II. 15세기 창작 종친 묘도문자의 현황

태조부터 성종대까지 대군과 왕자군의 수는 78명이다.¹⁷⁾ 이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더해지면 조선전기 종친의 수효는 엄청나다. 그러나 모든 종친의 묘도문자가 창작되거나 현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후에도 한동안 묘도문자가 창작되지 않다가 먼 후손들의 요청에 의해 뒤늦게 창작되는 경우도 많으며, 유력 문인에 의해 지어진 묘도문자가 그들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아 작품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세종의 총애를 받은 넷째 아들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 李瑀, 1420~1469)는 묘도문자가 창작되지 않은 대신, 강희맹이 찬술한 행장은 남아있다.¹⁸⁾ 성종대의 문제적 종친이었던 주계군 이심원(朱溪君 李深源, 1454~1504)은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사형된 후 묘도문자가 창작되지 않다가 허목(許穆)에 의해 재평가되면서 비로소 그 묘도문자가 창작되었다.¹⁹⁾ 이처럼 자료가 시기적으로 산재해 있거나 창작자의 문집에 미수록되면서 그간 종친들을 대상으로 한 묘도문자는 문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²⁰⁾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8~28면.

17) 태조-명종대까지 왕자들의 명단과 생몰년, 봉군시기, 사회적 활동의 대략에 대해서는 홍재석, 『조선전기 王子들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외교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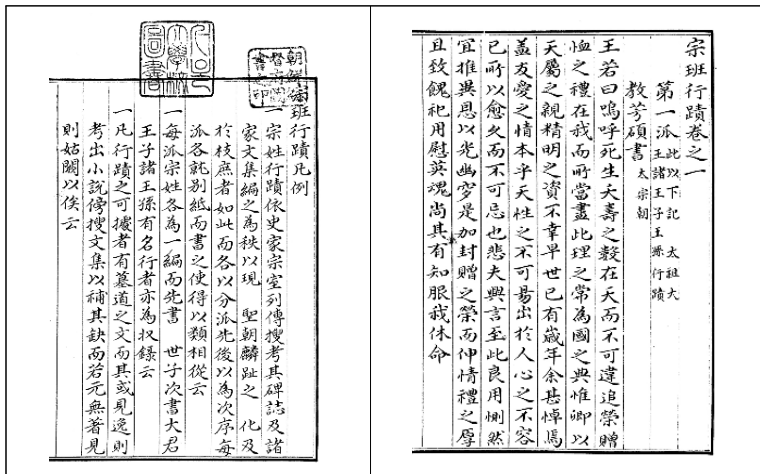
18) 강희맹, 국역 『사숙재전집』, 신영사, 2009에 <臨瀛大君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19) 허목, 『記言』 권58 散稿續集, 『節行忠臣』, <朱溪君碣陰記>. (『중반행적』 권1에도 수록)

20) 그간 월산대군 등 조선전기의 유력 종친들의 개별적 삶과 문학세계 내지 그들의 예술성 등을

그런데 조선시대 대표적 종친들의 주요 묘도문자를 모아둔 자료가 서울 대학교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바로 『종반행적(宗班行蹟)』이다.

『종반행적』은 중부시에서 편찬한 왕실전기자료로서 태조부터 숙종대까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종친 가운데 효행이나 문장 등이 뛰어난 자들의 전기와 유사(遺事), 묘도문자를 수록하고, 부록으로 일부 비빈 및 공주·옹주의 묘도문자를 추가한 5권 2책의 필사본 도서이다. 여기에는 월산대군과 같은 유력 종친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왕조실록에서 한두차례 거론되지만 한 후궁 소생 왕자군들의 묘도문자 역시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왕실보첩류 가운데 연구자들의 주목을 가장 덜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²¹⁾



<그림 1> 규장각 소장 『종반행적』 범례 (청구기호: 奎2370-v.1-4)

<그림 2> 규장각 소장 『종반행적』 권1 권수면 (청구기호: 奎2370-v.1-4)

논하는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묘도문자가 생애 재구의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종목, 『風月亭 山山대군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3집, 한국한시학회, 1998을 들 수 있다.

21) 홍재석, 앞의 논문, 2014에 참고문헌으로 『종반행적』이 언급되어 있으나 종친들의 생애 재구의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장서각에 소장된 왕실보첩류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정리한 연구에서도 빠져있다. 성봉현, 『장서각소장 왕실보첩류의 종류와 현황』, 『한국학논집』 제4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종반행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81년(숙종7) 8월, 교정청에서 종부시에 소장되어 있던 『종반행적』을 교정하고 2부를 정서·장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²²⁾ 그 뒤 1741년(영조 17)에 몇몇 자료를 추가 고증하여 편찬 완료하였다.²³⁾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 외의 다른 기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규장각에는 1681년에 만들어진 필사본(청구기호: 奎1865-v.1-2)과 1741년에 만들어진 필사본(청구기호: 奎2370-v.1-4) 등 총 4질이 소장되어 있고, 장서각에는 1741년 필사본 2질(청구기호: K2-465; K2-591)이 소장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1741년본을 PDF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보고는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선본인 1741년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반행적』의 범례에 따르면(<그림 1>) 이 책은 사가(史家)나 문인들이 남겨둔 종실의 전기 및 묘도문자를 통해 조선 왕실의 ‘인지(麟趾)의 교화’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²⁴⁾ 왕실의 후손들을 통해 조선 왕실의 훌륭한 가풍과 안정된 치세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 중 권1과 권2에 태조-성종의 종친 묘도문자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바 작가가 밝혀진 작품으로 15세기(연산군초 작품까지 포함)에 창작된 작품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2) 『숙종실록』 권12, 1681년(숙종 7) 8월 3일, “校正廳啓曰: ‘本廳校正之役, 今始告畢. (….) 且昌嬪、德興大院君、仁嬪誌狀, 不可不傳後, 而既不得並錄於列聖誌狀中, 別作一秩, 仍略載有名行宗班行蹟, 合爲二卷, 以見聖朝麟趾之化, 亦及支庶. 如此然後, 瑤源譜牒頭緒畢備, 舊本之訛者以正, 缺者以補, 無復有疎漏舛錯之失.’” 및 『선원록교정청등록(瑤源錄校正廳啓錄)』 해제(필자: 조계영).
-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제공 『종반행적』 해제(필자 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홈페이지 제공 『종반행적』 해제(필자: 이근호) 및 이들 해제에 따르면 1681년본과 1741년본에는 보충된 자료가 있을 뿐 별다른 글자의 출입 등이 보이지 않는다.
- 24) 『종반행적』 『凡例』, “宗姓行蹟, 依史家宗室列傳, 搜考其碑誌, 及諸家文集, 編之爲秩, 以現聖朝麟趾之化. (….) 凡行蹟之可據者, 有墓道之文, 而其或見逸, 則考出小說, 傍搜文集, 以補其缺, 而若元無著見, 則姑闕以俟云.”

수록 위치	작품제목	묘주	묘주의 특징	창작자 (창작연도)	비고
권1	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 ²⁵⁾ *	誠寧大君 李種 (1405~1418)	태종-원경왕후 민씨의 4남	卞季良 (1418)	태종의 명 (奉敎撰) ²⁶⁾
권1	永膺大君贈諡敬孝公神道 碑銘并序	永膺大君 李琰 (1434~1467)	세종-소현왕후 심씨의 8남	任士洪 (1498)	具壽永의 부탁
권1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桂 陽君贈諡忠昭公墓碣并序	桂陽君 李璿 (1427~1464)	세종-신빈김씨 의 장자(서2남)	徐居正 (1465)	문집 미수록
권1	王子密城君贈諡章孝公 碑銘	密城君 李琛 (1430~1479)	세종-신빈김씨 의 3남(서5남)	徐居正 [1480]	雲山君 李誠 ²⁷⁾ (밀성군 장남)의 부탁, 문집 미수록
권1	興祿大夫江陽君贈諡良悼 公神道碑銘并序	江陽君 李瀟 (1453~1499)	계양군 이종의 차남	洪貴達 (1501)	초명 濼 문집 미수록
권1	崇憲大夫永春君神道碑銘 并序	永春君 李仁 (1465~1507)	세종-신빈김씨 의 5남(서9남) 寧海君 李塘의 아들	南袞 (1509)	完川副正 李禧 (영춘군 장남)의 부탁
권2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月 山大君贈諡孝文公神道碑 銘有序	月山大君 李婷 (1454~1488)	덕종-소혜왕후 한씨의 장남 (성종의 형)	任士洪 (1489)	성종의 명 (奉敎撰) ²⁸⁾ 『風月亭集』수록
권2	齊安大君贈諡靈孝公神道 碑銘并序 ²⁹⁾ *	齊安大君 李瑁 (1466~1525)	예종-안순왕후 한씨의 장남	李荇 [1526]	西原君 韓恂의 부탁 ³⁰⁾
권2	王子完原君贈諡昭悼公神 道碑銘并序*	完原君 李燧 (1480~1509)	성종-숙의남양 홍씨의 장남(서4남)	申用漑 (1510)	문집 미수록
부록 상	敬惠公主墓誌*	敬惠公主 (1435~1473)	문종의 장녀 (단종의 누이)	李承召	문집 수록
부록 하	愼嬪金氏墓碑銘并序*	愼嬪金氏 (1406~1464)	세종의 후궁	金守溫 (1465)	문집 미수록
부록 하	淑儀洪氏墓碣銘并序*	淑儀洪氏 (1457~1510)	성종의 후궁	姜渾 (1512)	

*: 본고의 연구 대상은 아니나 주목이 필요하여 목록에만 수록한 작품

25) 변계량의 문집 『春亭集』 권12에 <有明朝鮮國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동문선』 권121에도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6) 『태종실록』 권35, 1418년(태종 18) 4월 4일, “命創昭頃公墳菴, (….) 命前都摠制趙庸製墓誌, 大提學卞季良製神道碑銘, 皆使直藝文館成概書之.”

27) 참고로 운산군 이계의 묘도문자는 1518년에 남근이 찬술하였는데, 『중반행적』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계양군은 세조를 지지하며 공신작위를 받았고, 운산군은 이후 중종반정 때 중종을 옹위하며 공신작위를 받았다. 해당 작품은 『國朝人物考』 권5 『國戚』에 수록되어 있다.

상기의 목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특징적 면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묘주 가운데에서는 왕의 적자인 대군들보다도 특정 후궁 소생 왕자군에 대한 묘도문자가 더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계양군과 그의 아들 강양군, 밀성군, 영해군의 아들 영춘군 등 세종의 후궁 신빈김씨 소생의 왕자군 및 그들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³¹⁾

공의 휘는 증(璿), 자는 현지(顯之)이니 신빈김씨의 소생이다. 신빈김씨는 어렸을 적에 궁으로 선발되어 들어갔는데 세종대왕이 매우 총애하여 여섯 아들을 낳았다. 공이 바로 그 첫째이다. 예에 따라 군으로 봉하니 계양군이라 하였다. 금상께서 즉위하실 때 공이 있어 좌익공신의 호를 하사받았다. 공의 동생들이 모두 현명하였는데, 주상께서 특히 친애하는 사람은 오직 공 한 분뿐이었다. 공 역시 스스로 특별한 지우를 입고 있음을 알아 더욱 공손하고 성실하게 절개와 충성을 다하였으니, 부지런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³²⁾

인용한 글은 서거정이 찬술한 계양군 이증의 신도비명의 일부이다. 실록에 따르면, 계양군은 세조대에 왕명의 전달을 담당하고 『명황계감』의 주석에 참여하는 등의 공로가 있는 반면,³³⁾ 왕실 종친 다수와 염문을 뿌린 기생 조요경(楚腰輕)과 사통하고 끝내 즐기에 주색(酒色)에 빠져 일찍 죽었다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기도 한 종친이다.³⁴⁾ 서거정의 묘도문자에는 부정적 기

28) 『성종실록』 권226, 1489년(성종 20) 3월 23일, “上命任士洪製月山大君神道碑銘.”

29) 『容齋先生集』 권10에 <齊安大君神道碑銘>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1525년 이후에 창작된 작품으로, 목록에만 보이고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한편 『중반행적』에는 명(銘)을 비롯한 작품의 후반부가 생략되어 있다.

30) 한순은 한백륜(韓伯倫)의 아들이자, 안순왕후의 아우이다.

31) 『중반행적』 권2에 수록된 세종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는 숙의홍씨(淑儀洪氏, 洪逸童의 女)의 아들에 대한 묘도문자가 가장 많다. ‘第八派(此以下記 成宗大王諸王子王孫行蹟)’ 중 위의 목록에 기재된 완원군 외에 익양군 이회(益陽君 李懷, 1587년에 左議政 金貴榮 撰), 경명군 이침(景明君 李忱, 參議 金瑛 撰) 등 2편의 묘도문자가 수록되어 있다.

32) 서거정, 『중반행적』 권1,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桂陽君贈諡忠昭公墓碣銘并序>[이하 ‘서거정(1)’로 약칭], “公諱璿, 字顯之, 愼嬪金氏出也. 金氏少時選入內侍. 世宗大王甚寵, 生六子, 公其長也. 例封爲君曰桂陽. 今上之卽位也, 與有功, 賜佐翼功臣號, 公之同產皆賢, 而上之尤所親愛者, 唯公一人. 公亦自以特荷知遇, 愈恭愨, 竭節盡忠, 翼翼不少懈.”

33) 『세조실록』 권20, 1460년(세조 6) 4월 3일, “明皇誠鑑, 予受世宗命始纂集, 後又定歌詞, 命桂陽君等考諸書入註, 多有誤處.”

34) 『세조실록』 권31, 1463년(세조 9) 윤7월 4일, “楚腰輕少爲平原大君琳所嬖, 平原君卒, 和義君嬰通焉. 上貶嬰而黜楚腰輕, 未既楚腰輕以才復屬樂籍, 桂陽君璿亦通焉. 上知之, 密問璿曰:

록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 공업 역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계양군의 차남인 강양군 이숙은 성종대에 공인을 첩으로 삼은 문제로 인해 강상의 죄를 범하였다는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에만 등장하는 인물이다.³⁵⁾ 강양군의 묘도문자는 연산군대 대제학을 역임하고 1501년 당시에는 동지중추 부사를 역임하고 있던 홍기달이 찬술하였다. 이처럼 계양군, 밀성군 등 신빈김 씨 소생의 왕자군 및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묘도문자가 『중반행적』에 대거 수록될 만큼 그들이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이들이 세조의 계유정난 과정에서 세조를 지지함으로써 총애를 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⁶⁾

공의 휘는 침(琛), 자는 문지(文之)이니 세종대왕의 11번째 왕자이다. (….) 세조께서 잡저에 계실 때 우애가 매우 깊었는데 공에 대해서는 더욱 돈독하였다. 세조가 즉위하신 뒤, 정체(政體)에 관계된 것은 반드시 공과 상의하셨다. 세조께서 마음을 가다듬어 군정에 임하실 때 삼군진무소를 도총부로, 도진무를 도총관으로 개정하고 종실이나 중신 가운데 택하여 제수하고자 하셨는데, 공이 가장 먼저 그 선발에 부응했다. (….) 공께서 영릉의 친릉제조(英陵遷陵提調)를 역임하실 때, 나 역시 부제조로서 4·5개월간 곁에서 모실 수 있었다. (….) 공은 지위가 총칭 가운데에서도 어른이며, 공훈은 맹부에 높이 올랐지만 절대로 교만한 기색이 없이 더욱 삼가고 더욱 겸손하였다. 모든 의론을 발표하고 조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명백하고 정대하였으니 늘 부지런히 국사를 염두에 두었다.³⁷⁾

인용한 작품은 서거정이 찬술한 밀성군의 묘도문자이다. 종친 묘도문자

‘外間以汝通楚腰輕, 信有諸? 豈無他妓, 敢相亂歟?’ 璿號泣叩頭, 誓天指地, 以辨其誣, 璿是日宿於楚腰輕之家; 위의 책, 권34, 1464년(세조 10) 8월 16일, “桂陽君璿卒, 停朝市三日, 舉哀 (….) 璿性端雅, 美容儀善談話, 待人接物謙恭, 未嘗以貴勢自矜, 至是, 因酒色而卒.”

35) 『성종실록』 권199, 1487년(성종 18) 1월 3일, “司憲府大司憲金自貞等上劄子, 略曰: 今洪常殷老所犯, 大傷風教, 瀟犯不敬之罪, 皆王法所不赦也.” 줄기가 잇기는 하나 구체적 내용은 없다. 『연산군일기』 권35, 1499년(연산 5) 11월 28일, “江陽君瀟卒.”

36) 한충희, 앞의 논문, 1995, 207면.

37) 서거정, 『중반행적』 권1, <王子密城君贈諡章孝公碑銘>(이하 ‘서거정(2)’로 약칭), “公諱琛, 字文之, 世宗大王第十一子. (….) 世祖在潛邸, 友愛深至, 於公益篤. 世祖即位, 凡關政體, 必咨於公. 世祖銳意軍政, 改三軍鎮撫所爲都摠府, 都鎮撫爲都摠管, 擇宗宰重臣授之, 公首膺其選. (….) 公之提調遷陵也, 居正亦獲爲陪副, 侍杖屨四五閱月. (….) 雖位長宗戚, 勳高盟府, 絕無驕矜之色, 愈勤愈下. 凡發於議論, 施於注措者, 明白正大, 屹屹以國事爲念.”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그가 조정 요직에 등용되어 활약한 상황을 기술해두었다. I 장에 인용한 한치형의 상소에 언급되었듯 ‘우애’를 내세워 종친을 정치에 참여케 한 것은 결코 상례가 될 수 없었지만, 밀성군이 뛰어난 덕과 지혜, 그리고 분수를 아는 겸손한 처신을 바탕으로 세조를 익위함으로써 나라의 간성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현황에서도 15세기 조선의 정치적 특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후궁 소생의 왕자군들은 조선전기 유력 사대부 가문과 혼맥으로도 연결됨으로써 굳건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종친 묘도 문자의 창작은 성녕대군이나 월산대군의 신도비처럼 군왕의 명령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일반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자손의 개인적 청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 드러나듯 임사홍(任士洪), 서거정(徐居正), 남곤(南袞), 홍귀달(洪貴達), 신용개(申用溉) 등 조선전기 최고의 관각 문인들이 종친의 묘도문자를 찬술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문명이 있다는 이유로 종친의 묘도문자를 찬술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일례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영웅대군 이염의 신도비명을 지은 임사홍은 영웅대군과 사돈지간이다. 영웅대군은 딸 1명만을 자식으로 두었으며 사위는 능성부원군 구수영(具壽永)이다. 구수영의 장녀, 즉 영웅대군의 외손녀가 바로 임사홍의 아들 임희재(任熙載)와 혼인하였다.³⁸⁾ 그리하여 임사홍은 영웅대군의 신도비명에서 “(영웅대군의) 사위인 지돈녕부사 구수영 공이 묘도에 비석이 없어 그 훌륭한 점이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못함을 염려하여 충주에서 돌을 날라다 비석을 깎아 완성하고는 나에게 명을 요구하였다. 나는 인척의 뜻으로써 차마 사양하지 못하였다.”³⁹⁾라며 창작의 경위를 밝혔다.

또한 계양군은 한확(韓確)의 사위로서, 그의 아내가 인수대비의 언니이다. 계양군은 막내아들 부림군 이식(富林君 李湜)을 당대 최고의 권신 정창손(鄭昌孫)의 사위 김질(金碩)에게 장가보냈고, 둘째딸을 정인지(鄭麟趾)의 아들인

38) 임사홍, 『중반행적』 권1, <永膺大君贈諡敬孝公神道碑銘并序>(이하 ‘임사홍(1)’로 약칭), “配 礪山望族宋氏贈左議政復元之女, 封帶方府夫人, 生一女, 封吉安縣主, 卽敦寧之配, 生五男五女, 男長曰崇璟, 今參奉, 次希璟, 次承璟, 次文璟, 次信璟, 女長適任熙載, 丙午進士, 居魁, [밑줄 강조] 次適沈光門, 今參奉, 次適安陽君恂, 成宗大王子也. 次適崔祥, 餘幼.”

39) 임사홍, 위의 글, “女婿知敦寧府事具公壽永, 以墓道無碑, 懼不能揚休於來世輩, 石忠原, 礪斷既訖, 索銘於士洪. 洪以姻婭之義, 不獲辭.”

정경조(鄭敬祖)에게 시집보내는 등 전방위적 혼맥을 자랑하였다. 밀성군은 그 손녀가 윤탕로(尹湯老)와 혼인하였는데, 윤탕로는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 윤씨와 남매간이다.⁴⁰⁾ 남곤이 묘도문자를 찬술한 영춘군은 신빈김씨 소생 영해군의 아들로서, 그 아내가 1509년 당시 영의정을 역임하고 있던 류순정(柳順汀)의 누이이다.⁴¹⁾

15세기 당시에 종친들은 적서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족과 혼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만큼, 종친의 삶은 왕실의 권위와도 직결되어 있다.⁴²⁾ 그러한 까닭에 이들의 묘도문자 역시 서거정, 임사홍, 남곤 등 정치적으로 친왕실적 성향이 농후하거나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⁴³⁾ 관각 문인, 혹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찬술을 부탁함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종친의 묘도문자는 후손의 개인적 부탁에 따른 찬술일지라도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작품들은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임사홍이나 남곤의 경우 그 문집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료적 희소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종반행적』에 수록된 종친 대상 묘도문자가 일정 부분 관각문학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III. 종친 묘도문자의 관각문학적 특징

1. 고귀한 왕실 혈통에 대한 찬양

일반적으로 묘도문자의 서(序)·명은 묘주의 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

40) 원창애, 앞의 책, 2018, 225면.

41) 남곤, 『종반행적』 권1, <崇憲大夫永春君神道碑銘并序>, “夫人柳氏, 贈大巨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壤之女, 以門以德, 克配君子.”

42) 원창애, 위의 책, 2018, 108면.

43) 참고로 서거정 역시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거정의 서자(庶子) 서복경(徐福慶)은 서거정에게 적자가 없었던 지라 승중(承重)하였다. 서복경의 두 딸은 세종의 증손인 운산부수이계(雲山副守 李桂), 세조의 손자인 영천부정 이감(寧川副正 李淦)과 혼인하였다. 박진, 『조선 초기 王親婚과 王室 妾子孫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사학보』 제48호, 고려사학회, 2012, 225면. 한편, 『종반행적』의 권2-5 등 후반부에 수록된 묘도문자의 주요 창작자 역시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증종의 사위인 송인(宋寅), 세종의 아들 임영대군의 4대 손서(孫婿)이자 명종대에 중부시 제조 역임한 홍섭(洪漣) 등을 들 수 있다.

된다. 특히 15세기에는 유교적 친족의식이 본격 발현되면서 조상들이 쌓아온 사회적·도덕적·문화적 명망과 지위를 후손들이 무겁게 인식하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사유가 여러 문학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바 있다.⁴⁴⁾ 종친 묘도문자가 사대부들의 묘도문자와 변별되는 특수한 지점은 바로 그 가계가 왕실 혈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더욱 눈여겨볼 지점은 이씨 왕조의 혈통 가운데 ‘세종’, ‘성종’과 관련된 부분이 유독 부각 된다는 점이다.

아름다우시도다! 세종대왕은 실로 동방의 성군이시니,
 덕은 요사(姚姒)에 비견되고, 치적은 성강(成康)을 뛰어넘었네.
 인을 거듭하여 쌓인 경사, 오이처럼 자손이 번창하여
 금지옥엽, 형제들이 연달아 향기 드날렸도다.
 懿我世宗, 寔君東方.
 德媲姚姒, 治邁成康.
 累仁積慶, 瓜瓞攸昌.
 金枝玉葉, 棣萼聯芳.

- [1]임사홍, 영웅대군 신도비명

아아! 우리 세종장헌대왕은 성덕과 훌륭한 정치로 역사서에서 해동의 요순이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요순보다도 훨씬 나으시다. 요순은 대성인으로 더할 나위 없으신 분들이다. 그러나 단주(丹朱)와 상균(商均)이 능히 그 덕을 닮지 못하여 그 이후는 더욱 들리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누가 우리 세종대왕처럼 신성한 전통을 이어받아 무궁히 이어나가며, 그 후손들도 모두 선을 행하기를 즐겨 길이 부귀를 향유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⁴⁵⁾

- [2]홍귀달, 강양군 신도비명

『대아』에서 과질(瓜瓞)을 노래하고, 『국풍』에서는 인지(麟趾)를 감탄하더니
 뿌리와 가지 면면히 이어지고 기린의 이마 이후하네.

44) 구슬아,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1면.

45) 홍귀달, 『중반행적』 권1, <興祿大夫江陽君贈諡良悼公神道碑銘并序>,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聖德至治, 史稱海東堯舜. 愚以謂堯舜, 殆不如也. 堯舜, 大聖人也, 固無以加焉. 然丹朱商均, 不克肖其德, 其後又無有聞焉. 孰與我世宗, 聖授神傳, 繼繼無窮, 并其支裔, 皆樂於爲善, 長享富貴者哉!”

홀륭하도다! 영춘군이여, 장헌대왕의 손자로다.
 능히 홀륭함을 계승하였으니, 그 성품 온화하시네!
 大雅歌飗, 國風嗟麟.
 本支緜緜, 定趾振振.
 懿厥永春, 莊憲之孫.
 克類克胤, 性醇以溫.

- [3]남군, 영춘군 신도비명

자료[1]은 1498년(연산군4), 상호군 임사홍이 찬술한 영웅대군의 신도비명 가운데 명사(銘詞) 서두 부분이다. 묘지의 서문이 영웅대군의 인정기술로 시작하여 그가 부왕인 세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음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과 달리,⁴⁶⁾ 명사에서는 전체 40구 가운데 8구를 할애하여 세종의 성세를 찬양하고 있다. 세종은 순임금과 우임금, 주성왕과 강왕의 덕치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그 공업이 누적되어 영웅대군 같은 홀륭한 자손들로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2], [3]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경』 「대아」 <면(綿)>의 ‘오이[瓜瓞]⁴⁷⁾’, 「주남」 <인지지>의 ‘기린’ 등 널리 알려진 전고를 활용하여 성세의 증거와 왕실의 존엄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2]는 세종의 손자 강양군 이숙의 신도비명 가운데 병서의 서두이다. 흥귀달은 이상적 군주의 전형인 요순과 대비하여 세종에게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칭송하며, 그 근거로 불초한 자식의 상징인 요의 아들 ‘단주’와 순의 아들 ‘상균’을 들었다. 요순은 불초한 자식으로 인해 그 홀륭한 자질이 면면이 전해지지 못하고 단절된 반면, 세종은 그 자손들이 부왕의 뛰어난 자질을 제대로 계승하여 부귀의 복록을 누린 것이라며 세종에 대한 존모와 그의 치세를 향한 향수(鄉愁)를 드러냈다.

강양군 이숙은 장헌대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계양군 이증으로 장헌대왕의 아들이며 세조대왕의 아우이다. 어머니는 정선군부인으로 좌의정 한확의 여식이며, 인수대비의 언니이다. 군은 태어난 지 3년만에 명선대부의 작위를 제수받고

46) 임사홍(1), 앞의 글, “大君諱琮, 明之其字, 我世宗莊憲大王第八子也. 大君生而丰姿秀美, 稟性聰穎, 世宗奇愛.”

47) 『시경』 「대아」, <綿>, “綿綿瓜瓞, 民之初生, 自土沮漆.”

네 분의 임금을 거쳐 열성들의 충애를 입었다.⁴⁸⁾

인용한 대목은 자료[2]에 이어지는 인정기술 단락이다. 홍귀달은 세종 등 강양군의 부계 혈통에 더해 모계 혈통과 왕실간의 관련성까지 상세히 추가 서술함으로써 종실 혈통의 위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세종에 대한 존모와 향수는 자료[3]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용한 대목은 영춘군 이인(李仁, 1465~1507)에 대해 남곤이 찬술한 신도비명의 명사 서두이다. 특히 영춘군이 세종의 손자로서 그 훌륭한 점을 제대로 본받았기에[克類克胤] 영춘군의 성품이 운운하다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신 뛰어난 성군으로 순임금처럼 현명하고 요임금처럼 공손하신 분이다. 지극한 효로 양궁(兩宮: 안순대비, 인수대비)을 받들고, 지극한 인덕으로써 구족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 덕이 아래로 드러나고 백성들은 믿음에 부합하니 태평성대의 정치가 이미 융성하고, 천륜의 즐거운 일들이 한창 펼쳐짐에, 어찌 대군께서 이토록 갑자기 떠나시리라 생각했겠는가? 슬픈 마음 그지없다.⁴⁹⁾

위의 글은 1489년, 임사홍이 성종의 명을 받고 편찬 월산대군 신도비명의 서두이다. 임사홍은 찬술의 의뢰인인 성종의 뛰어난 자질과 그 체세의 융성함을 4자의 배비구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종에 대해 하늘이 내린 천부적 자질[天縱上聖]을 타고난 인물, 요순의 어진 면모를 본받은 성군, 왕실 내부의 종친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에게도 덕을 베푸는 제가와 치국의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평성대에 성종의 친형 월산대군이 돌연 사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억양법을 통해 성종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그밖에 『중반행적』 권2에 수록된 송인(宋寅, 1517~1584) 찬술 <正義大夫 義泉君墓碣銘>(묘주: 성종의 증손자 義泉君 李仁. 이인은 완원군의 손자)에는 성종이 천명에 따라 왕위에 올랐기에 그 자손들이 융성하였음을 칭송[恭惟我成宗康靖大王, 克有聖德, 受天隆報, 螽斯麟趾之盛.]하는 한편, 명사에서도 성

48) 홍귀달, 앞의 글, “江陽君瀟 莊憲大王孫也. 考曰桂陽君璿, 莊憲之子, 世祖之弟, 妣曰旌善郡夫人, 左議政韓確之女, 仁粹王妃之姊. 君生三歲, 授明善大夫, 歷四朝, 荷列聖寵眷.”

49) 임사홍, 『중반행적』 권2, <純誠明克經濟佐理功臣月山大君贈諡孝文公神道碑銘有序>(이하 ‘임사홍(2)’로 약칭), “我殿下, 天縱上聖, 堯欽舜哲, 誠孝奉兩宮, 至仁親九族, 德著于下, 民孚于信, 時雍之至治是臻, 天倫之樂事方叙, 豈意大君遽爾云逝? 悲之可既耶!”

종의 치세를 순임금의 그것에 비의한 사례[“展也宣陵，東方之舜。公是曾孫，玉葉光潤。”] 역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종친 가운데 세종과 성종의 직계 후손들은 찬술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두 임금과 함께 견인해 온 조선의 태평성대를 회상하게 하는 인적 증거로 기능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남다른 우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2. 천속(天屬)간의 내밀한 사정(私情)과 후의(厚意) 묘사

그러나 종친의 묘도문자가 위와 같이 추상적 서술로만 일관되는 것은 아니다. 15세기 종친 묘도문자에 농후하게 보이는 또다른 문학적 특징은 바로 군왕의 내밀한 감정이 거침없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종친들이 그 어떤 충성스러운 사대부라 할지라도 공유할 수 없는 군왕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종께서) 승정원에 “소경공(昭頃公: 성녕대군)이 평소 쇠고기를 좋아하였으니, 삭망제(朔望祭)에 내가 이를 제수로 올리고자 한다. (…)”라고 전지(傳旨)하셨다. (…)
또한 “희생으로 닭을 쓰는 것이 예법에 있는가?”라 물으니 여러 대인들이 “희생에 닭을 쓰는 것이 고례에 있습니다.”라 하였다. 그러자 태종께서 “소경공이 닭고기도 좋아하였느니라”라고 하셨다.⁵⁰⁾

인용한 글은 태종이 막내아들 성녕대군을 잃고 그 제사와 관련하여 승정원에 내린 전지이다. 태종은 성녕대군을 잃은 상심이 매우 큰 나머지 비통함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며 대제학 변계량에게 묘비를 지을 것을 명할 정도였는데,⁵¹⁾ 이처럼 아무리 군왕일지라도 천속 간의 사적 감정을 오롯이 감추고 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15세기 종친의 묘도문자 찬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균열의 지점을 포착하고 관련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50) 『태종실록』 권35, 1418년(태종 18) 5월 9일, “傳旨承政院曰: ‘昭頃公平日嗜牛肉, 朔望之祭, 予欲薦之, 然其物甚大, 不可輕用.’ (…)
又命曰: ‘牲用雞, 於禮有乎?’ 諸代言曰: ‘(…)牲用雞, 古禮也.’ 上曰: ‘昭頃公又嗜雞肉.’”

51) 변계량, 『종만행적』 권1, <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 “永樂十六年歲在戊戌春二月初五日, 大匡輔國誠寧大君, 年十四, 以病卒. 近臣傳旨若曰: ‘誠寧大君種亡矣. 年既不永, 而又無子, 悲之庸有既乎? 其令史臣, 碑于墓道, 垂諸不朽, 庶有以慰其精魂於九泉之下, 且以塞予無窮之悲也.’”

대군은 나면서부터 자태가 수려하고 품성이 총명하여 세종께서 유독 예뻐하셨다. 항상 무릎 위에 앉히고 즐거워하셨다. 대군을 보호함이 지극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자란 뒤에도 총애가 날로 깊어졌으며 내려주는 물건도 헤아릴 수 없었다. 좋은 음식을 진상하면 반드시 대군에게 나누어 주고 먹기를 기다렸다가 잡수시고는 하였다. 궁밖에 거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데리고 다니셨으며 쫄내에서도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다. 이에 앞서 모든 왕자들은 궁중에서 늘 주상을 ‘진상’이라고 불렀는데 대군에게는 ‘너는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께만 진상이라고 부르거라.’라고 하셨으니 사랑을 받음이 이와 같았다.(…)

문종께서도 대군이 선왕이 유독 아끼셨다는 이유로 우애가 다른 아우들과는 달랐다. 내탕을 기울여 대군의 사저로 보내니 대군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나 억지로 권유한 뒤에야 겨우 받았다. 세조가 즉위하여서도 보살핌이 더욱 돈독하여 항상 쫄내에서 만나보았고 만약 며칠간 못 만나게 되면 안부를 묻는 내관이 길에 계속 이어졌으며, 열흘 걸러 그 집으로 납시기를 두세 번 하셨다. 또한 집 안사람들의 예로써 대군을 부를 때 어릴 때의 자를 불렀으며 그 부인은 제수씨라 부르며, 술을 내오라 하고 수창하며 담소가 넘실넘실 그치지 않다가 날이 다 기울어서야 파하곤 하였다.⁵²⁾

- 임사홍, 영웅대군 신도비명

임사홍은 영웅대군이 금지옥엽으로서 부왕 세종으로부터 받았던 지극한 총애와 관련한 일화를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종친들의 묘도문자에 공적이 기록되지 않는 데 비해 왕실 가족간의 화목함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일화는 대화체의 삽입과 감정의 진솔한 묘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임사홍은 영웅대군을 무릎에 앉히고 즐거워하던 세종의 감정[以爲娛嬉], 여러 하사품과 진상품을 무한히 내려주고 15세가 되어 관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쫄내에서도 전하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남다른 총애에 대해 마치 옆에서 지켜보듯 가감 없이 상세히 묘사하였다. 물론 세종의

52) 임사홍(1), 앞의 글, “大君生而丰姿秀美, 稟性聰穎, 世宗奇愛. 常置之膝上, 以爲娛嬉. 其所保護, 靡不至焉, 既長, 寵眷日深, 錫賚無算. 凡進膳羞, 必分而與之, 娛其食, 乃御. 如幸于外, 必隨之, 輦內未嘗頃刻相舍. 先是, 諸王子在宮中, 常稱上曰進上, 至於大君, 則教曰: “汝年十五以前, 呼我以爺, 母曰進上.”云也, 其見愛重, 類如此.(…) 顯陵以先王所重, 友愛異於諸弟, 至傾內帑, 輸之于第, 大君辭謝不受, 強與之而後受之. 光廟踐阼, 眷注益篤, 常引見臥內. 若數日不接, 中使問候, 連絡於道. 旬日之間, 幸其第者再率. 用家人禮, 呼大君, 以小字, 呼夫人, 以嫂氏, 命酌相酬, 談笑宴食, 竟晷乃罷.”

이러한 사랑은 영웅대군의 타고난 자태와 성품에 호응한 결과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또한 영웅대군의 형인 문종과 세조가 부왕의 뜻을 받들어 영웅대군과 우애롭게 지내고 있다는 점도 상세히 서술하였다. 문종이 내탕을 기울여[至傾內帑] 그를 부유하게 하는 장면, 세조 역시 궐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럼없이 사가의 호칭을 쓰는 장면, 세조와 영웅대군의 담소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해가 저문 뒤에야 자리를 파하는 장면[談笑袞袞, 竟晷乃罷]을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웅대군의 줄기에서는 이처럼 넘치는 총애로 인해 거부(巨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검소하고 사치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한 반면,⁵³⁾ 임사홍의 묘도문자에는 의례적인 차원에서라도 종친들이 갖추어야 할 전형적 특징으로 기술되곤 하는 검소함에 대해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당초 세조께서 강양군을 궁중에서 양육하며 늘 곁에 두셨다. 크고 작은 행차에 반드시 데리고 다니셨으며, 특별히 종학에 나아가지 말라 하시고 별도로 사부를 붙여주어 독서하게 하셨다. 가끔은 친히 황석공(黃石公)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셨다. 그래서 당시 강양군을 내종친(內宗親)이라 불렀다.⁵⁴⁾

- 홍귀달, 강양군 신도비명

대군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함이 남달랐으니 세조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궁중에서 양육하면서 활쏘기, 말타기, 서예, 산수 등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 우리 전하께서 자라남에 같은 곳에서 함께 놀게 하시며 크고 작은

53) 『세조실록』 권41, 1467년(세조 13) 2월 2일, “世宗嘗欲盡以內帑珍寶賜琰, 未果而薨. 及文宗卽位, 傾帑賜之, 悉輸其第. 於是, 御府先世相傳之寶, 盡歸於琰, 財累巨萬. 頗儉嗇, 不事侈靡. 每入侍, 謙恭謹恪, 鮮有過失, 世祖甚重之.” 한편 실록에는 영웅대군의 사지가 너무 화려하고 그가 세종의 총애를 입음에 따라 주변에 아첨하는 무리가 많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하다. 『세종실록』 권105, 1444년(세종 26) 8월 22일, “又因緣爲收養, 每遇永興生辰, 多獻珍寶, 上鍾愛永興, 故寵遇順蒙, 廷臣莫及. 恃寵驕橫, 雖屢犯罪惡, 上每優容之, 益無忌憚, 人皆恨之.”; 권111, 1446년(세종 28) 3월 7일, “時諸大君第宅踰制, 撤漢城府, 起平原大君第, 窮極壯麗. 又撤安國坊民家, 將起永膺大君第, 營繕之費, 不可勝紀.”

54) 홍귀달, 앞의 글, “江陽君灑(…)初, 世祖育于宮中, 常置諸左右, 凡大小鸞幸, 必隨之, 特令勿隸宗學, 從內師傅讀書, 或親授黃石公兵法, 時號內宗親.”

행차마다 반드시 연에 태우고 다니셨다. 당시 궁중에서 두 분 형제로 하여금 장난을 치며 놀게 하니 즐겁게 서로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시며 용안이 늘 환했다. (….) 성종께서 대군의 집에 자주 거둥하셨는데 일어서서 맞아들임에 반드시 사가의 예법을 쓰시며 어렸을 적과 같이 즐거워하셨다. 은사(恩賜)가 거둬진 것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는데, 일찍이 집 서쪽 동산의 정자에 거둥하시어 ‘풍월정(風月亭)’이라 명명하고 친히 근체시 오언율시를 지어 하사하셨다. 그리고 근신들에게 모두 화답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은총이다. 대군의 성품이 계곡과 산을 애호하여 고양 북촌에 별장을 짓고 한가한 날에는 곧장 가서 노닐며 시를 읊었는데, 주상께서 아시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선운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셨다.⁵⁵⁾

- 임사홍, 월산대군 신도비명

앞서 인용한 글은 홍귀달이 지은 강양군의 신도비명이다.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강양군을 아껴 5세까지 궁중에서 기르고 종학이 아닌 별도의 사부를 붙여주어 학업을 시작하게 하였다는 점, 크고 작은 행차에 데리고 다니거나 직접 병법을 가르쳐줄 만큼 애정을 쏟아 키웠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세조의 자손 사랑은 월산대군 신도비명에서도 드러난다. 손자인 월산대군과 어린 성종을 대궐에서 양육하며 놀게 하였는데, 난만한 어린 형제의 웃음소리와 그것을 지켜보는 세조의 표정이 관찰자적 시점에서 묘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영웅대군의 신도비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섬세한 묘사와 농밀한 감정 표현은 임사홍이 자신의 관각글쓰기에 자주 활용하는 글쓰기 수법으로 보인다. 성종 역시 편액을 하거나 어제시를 내려주고 자주 선운을 하사하는 등 월산대군과 극진한 우애를 자랑하는 한편, 자주 사가를 찾아가 교류하며 정신적으로 의지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종친은 자식이나 형제로서 군왕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군신의 상하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군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는 등 사가의 호칭이 허용되지 않았다.⁵⁶⁾ 당연히 군왕 역시 천축의 관계에

55) 임사홍(2), 앞의 글, “大君子字子美, 婷其諱也, 殿下之母兄, 以景泰甲戌(1454)十二月十八日甲午生. 天姿秀美, 聰穎異常, 世祖鍾愛, 養于宮中, 凡射御書數, 靡不親爲指教. 及我殿下之長也, 並處同遊, 小大駕幸, 必使隨輦. 時於宮中, 令嬉戲爲樂, 權然相諠, 天顏爲之屢開. (….) 上屢幸其第, 凡起接引, 必用家人禮, 驩如少時. 恩賚稠疊, 不可勝記. 嘗御宅西之園亭, 命名曰風月, 親製近體詩五律以賜, 命近臣皆和, 此亦寵恩也. 性愛溪山, 置別墅于高陽之北村, 暇日徑往臨眺, 嘯詠寓興, 上知之, 則必遣中使, 賚宣醴以隨.”

56) 이은영, 『朝鮮後期 御製 祭文의 規範性과 抒情性』,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

서 비롯된 인지상정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일례로 성종이 월산대군의 사냥에 겸사복을 보내어 도운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사적 감정을 자제하고 공도(公道)로써 대우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⁵⁷⁾ 이에 대해 성종은 월산대군이 자신의 하나뿐인 형이므로 상소의 표현이 지나치다며 서운함을 토로하였다.⁵⁸⁾

종친과 군왕은 이처럼 미묘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영응대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점, 세조가 대군이 아닌 형제의 예로 대하며 호칭한 점, 세조가 궁 밖에 있어야 할 조카나 손자를 궁중에서 양육하며 거동에 수행하게 한 점, 성종이 월산대군과 사가의 예로 대우하며 즐거워 한 점 등이 종친의 묘도문자에 가감 없이 서술된 것은 그것이 바로 왕실 가문의 돈독함을 과시하는 장치이자 군왕의 인간적인 감정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찬술자들은 장면묘사와 일화의 삽입을 통해 군왕이 자식이나 손자를 대하는 일상적인 면모, 자상하고 다감하며 너그러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성정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것은 자칫 공도를 잃은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에도, 만백성의 너그러운 부모로서 관대한 군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종친의 묘도문자에서 반복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군왕이 궁을 떠난 형제에게도 후의를 베푸는 면모를 서술함으로써 종친들이 군왕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쉴 곳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 장에 인용한 한치형의 상소에도 언급되어 있듯, 친숙간의 관계에는 후한 대우가 용인된다. 그러한 군왕의 후의에 호응하듯 종친들도 부왕과 모후의 상사에 예를 다하고, 조석으로 궁중의 군왕과 대비들에게 문후 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⁵⁹⁾의 효와 충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

회, 2002, 111~112면.

57) 『성종실록』 권60, 1475년(성종 6) 10월 23일, “司諫院司諫朴崇質等上劄子曰: ‘臣等聞, 近者月山大君 嬖有門外之行, 殿下令兼司僕及左右牌應師從之, 是出於聖上寵愛之無已也. 然臣等竊思之, 此非所以待大君之道也. 大君生長富貴之地, 位居人臣之極, 雖引之以儉素, 而猶慮其或至於侈靡, 養之以淡泊, 而猶慮其或至於驕逸, 何況以馳騁弋獵之娛導之乎? 夫人心易溢難持, 大君將因是爲習, 好獵不已, 則必至於放蕩失道, 而動犯邦憲, 以傷聖上友于之德, 然則向之所以寵愛之者, 適所以害之也. 願自今待之以道, 以保終始之恩.’”

58) 위의 글, “御書曰: 卿等所言, 深爲不可. 月山大君, 予之一兄, 一行門外, 何至於犯憲? 所謂失道, 比何人, 所謂犯憲, 比何人歟? 予嘗以若等爲識理, 以此觀之, 何識理乎? 將於明日, 詳問爾等之意.”

로 종친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3. 규범적 이상형 제시의 이면

국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의 숙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군왕으로부터 지극한 총애와 후의를 받는 대신 관직이나 권력으로부터 초연해야 했다.⁶⁰⁾ 종친 묘도문자의 본문에서는 이들이 단정한 성격과 기품, 부왕이나 모후에 대한 극진한 효심, 측은지심과 관대한 도량의 소유자임을 서술하며 규범적 이상형을 제시하고 있다.

1438년 영릉께서 돌아가셨을 때, (밀성군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슬퍼함이 예를 뛰어넘었다.** (….) 1464년,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공의 네 형제가 혹은 일찍 죽기도 하고 병을 앓고 있어 공이 홀로 여묘를 지키며 애통해하였고, 예를 다 함에 해이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송하였다. 복을 마치고도 명절이 되면 무덤에 올랐으니 광릉께서 그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기셨다. 공은 품성이 단정하고 중후하며 천성이 너그러워 종친들을 화목하게 이끌고 **인친들과도 돈독하였다.** (….)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온화한 기운이 겉으로 넘쳐흘렀다. 평생 성색과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마치 가난한 선비처럼 담박한 삶을 살았다. 집에 있을 때는 급하게 말을 하거나 놀라는 얼굴빛을 하는 일이 없었고 노복들이 잘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혼내지 않았다.**⁶¹⁾

- 서거정, 밀성군 신도비명

59) 임사홍(2), 앞의 글, “弘治初元戊申九月, 仁粹王大妃疾彌留, 出御外間, 轉徙數家. 大君宵晝遑遑, 忘其寢食, 憂勤侍藥, 遂成沉痾, 宮掖蒼黃, 候問相望.”; 남근, 『王子完原君贈諡昭悼公神道碑銘并序』, “及成宗鼎湖, 攀號殯側, 朝夕不懈, 饋奠于魂殿, 其直宿, 不計輪次, 倍蓰他宗宰. 昭惠王后之喪, 適以事免, 在家上請, 援例服喪經如制, 提調文昭殿, 視膳不怠, 爲宗正二年, 不可干以私, 人皆以此多奇之, 每不避寒暑, 間寢大內, 必趁黎明, 時人或謂曰: “何乃太早?” 公曰: “一寢未忘君上, 容待天明耶?””

60) 예컨대 세조는 어린 월산군과 잘산군을 궁중에서 양육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린 나이에 독서를 하면 기가 소진되므로 독서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성종실록』 권2, 1470년(성종 1) 1월 10일, “大王大妃傳曰: ‘世祖嘗謂大行王曰: ‘勿誦書, 誦書則氣索.’ 又每見主上及月山, 必曰: ‘毋事讀書. 讀書, 非汝輩所急.’ [밀줄 강조: 필자] 凡人幼少時, 多不喜讀書, 而世祖之教又如是, 故主上學問未熟.”

61) 서거정(2), 앞의 글, “庚午春, 英陵上賓, 哀毀踰禮. (….) 甲申丁母憂, 四兄弟或早逝或嬰疾, 公獨居廬哀傷, 盡禮不懈, 人稱其孝焉. 服既闋, 每值令節, 告謁上塚, 光陵嘉其誠孝. (….) 公稟性端重, 秉心寬恕, 敦睦家族, 篤愛姻親. (….) 待人接物, 和氣盎然. 平生不喜聲色鷹犬, 淡然若寒土. 居家無疾言遽色, 僕隸有過, 未嘗加謔怒.”

세종께서 어느 날 대군을 즐겁게 하려고 인물을 새긴 영등(影燈)을 만들어 진열하여 놓고 관람하고 있었는데, 화염이 잘못 일어 그 인영(人影)에 닿아 타버리게 되었다. 대군은 당시 다섯 살이었는데 그 모습을 가리키며 깜짝 놀라 “빨리 꺼주세요.”라고 외쳤다. 주상께서 그 까닭을 물으니 “(영등에 새긴) 사람이 다칠까봐 그랬습니다.”라 대답하셨다. 그리하여 주상께서 더욱 기특하게 여기셨다. 경서를 몹시 좋아하여 읽기를 쉬지 아니하니 시녀들이 병이라도 날까 염려하여 책을 감추면 굳이 꺼내어 또 읽었다. 1450년 2월, 세종께서 승하하시니 대군이 슬퍼함이 예에 지나쳐 몸을 상하였다. 대군은 1434년에 태어나셨고 향년은 34세이다. 본성이 차분하고 예를 지킴에 삼가고 부지런하였으며 형들을 공경하고 순종하였다. 인척들과 돈독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대함에 화기가 충만하였다. (...) 성색과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급하게 말하거나 노기를 띠지 않았다. 노복들이 허물이 있어도 성을 내어 꾸짖는 일이 없었으니 가히 인후한 군자라 할 수 있다.[밑줄 강조: 필자]⁶²⁾

- 임사홍, 영웅대군 신도비명

위에 인용한 자료는 세종의 아들 밀성군 이침에 대해 서거정이 지은 묘도문자이고, 아래는 영웅대군에 대해 임사홍이 지은 묘도문자이다. 두 작품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찬술된 것으로 보이는데, 밑줄로 강조한 바와 같이 두 종친의 비범함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요건들이 마치 한 사람이 지은 듯 표현마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임사홍은 영웅대군이 곱고 여린 심성으로 백성을 두루 사랑하는 왕실의 자품을 타고 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등에 새긴 인형(人形)과 관련한 일화를 삽입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온화한 기운을 ‘가국(可掬)’이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묘사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⁶³⁾

이러한 비범함은 비단 두 종친만 견지하고 있던 요건은 아니다. 흥귀달 역시 강양군 삶의 특징으로 세속적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는 온화한 성품

62) 임사홍(1), 앞의 글, “世宗一夕, 爲大君觀玩, 設影燈, 有雕鏤人物之狀. 火焰誤, 觸將燼. 大君方五歲, 指之驚駭, 亟請撲滅, 上問其故, 對曰: ‘恐傷人也.’ 上益異之. 性嗜經籍, 貪讀不置, 侍者恐病, 隱其卷, 固出之而讀. 庚午二月, 世宗上賓, 大君哀毀踰禮. 大君生於宣德甲寅, 得年三十四. 秉心沈靜, 率禮恭謹, 敬順兄長. 親愛姻族, 待人接物, 和氣可掬. (...) 不喜聲色鷹犬, 亦無疾言遽色, 僕隸有過, 未嘗譴怒, 可謂仁厚之君子.”

63) 이 일화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영웅대군의 줄기에도 실려있다. 『세조실록』 권41, 1467년(세조 13) 2월 2일, “琰, (...) 纔能言, 見花燭雕作孩兒, 驚曰: ‘燭燒則當及孩兒, 不忍見也.’ 世宗大奇之.”

및 시주(詩酒)와 화훼에 대한 애호 등 예술적 취향을 들고 있으며⁶⁴), 임사홍이 찬술한 월산대군의 신도비명에서도 그 장점으로 소박하고 명리에 담박한 성품과 음악, 사냥 등을 싫어하고 오직 독서에만 탐닉하던 면모가 재현되어 있다.⁶⁵)

사람들은 선행을 즐기는 행실을 칭송하며
동평왕에 비의하였네.
人稱樂善, 擬東平也.

- 서거정, 밀성군 신도비명

특히 이와 같은 종친의 전형은 여러 묘도문자에서 공통적으로 한나라의 제후왕인 동평헌왕(東平獻王)과 하간헌왕(河間獻王)으로 상정된다. 동평헌왕은 후한 광무제의 1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명리에 담박한 채 경서를 읽는 것을 즐겼으며 광무제에게 사냥을 나갈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즐겁다고 답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⁶⁶) 하간헌왕은 전한 효경제의 13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서와 문학으로 유명하다.⁶⁷) 특히 15세기의 종친들 가운데 월산대군이 하간헌왕에 비견된다.

전에서 이르기를 ‘인덕이 있는 자는 장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고, 어진 자가 반드시 장수하는 것도 아니다.⁶⁸) 안회는 단명하고 도척은 장수하였으니, 그 이치를 알지 못한 지 오래이다. 지금 월산대군 같은

64) 홍귀달, 앞의 글, “君於世俗之好無心焉, 獨愛花木琴書之類爲伍. 家有雙松亭, 自號雙松主人, 又有五香亭, 春蘭夏蓮秋菊冬梅, 四時皆有酒香, 故名焉. 性嗜酒, 嘗大書酒德頌, 貼于壁, 醉輒吟哦焉. 雅解音律, 能手鼓琴瑟, 尤善琴, 世廟特賜號琴軒.”

65) 임사홍(2), 앞의 글, “大君雅性冲澹, 不喜紛華, 於聲樂鷹犬等事, 未嘗留意. 獨耽嗜書史, 已了大義.”

66) 『후한서』 <東平憲王蒼傳>, “蒼少好經書, 雅有智思.(…)日者問東平王‘處家何等最樂?’王言: ‘爲善最樂.’”

67) 『전한서』 <河間獻王德>, “從民得善書, 必爲好寫與之, 留其眞, 加金帛賜以招之, 繇是四方道術之人, 不遠千里. 或有先祖舊書, 多奉以奏獻王者, 故得書多與漢朝等. 是時, 淮南王安亦好書, 所招致率多浮辯, 獻王所得書, 皆古文先秦舊書.(…)言得事之中, 文約指明.”

68) 이와 같은 글의 용례는 유종원, <亡姑渭南縣尉陳君夫人權厝誌>, “嗚呼! 貴不必賢, 壽不必仁, 天之不可恃也, 久矣.”; 林希逸, 『莊子口義』 권9, 『雜篇』, <寓言第二十七>, “然謙者未必福, 仁者未必壽, 幽明之間, 有時而不相應, 安得謂之有鬼神?” 등에 보인다.

분은 더욱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 황망함을 더더욱 감출 길이 없다. (…)

대군은 타고난 성품이 담박하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음악이나 사냥 같은 일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둔 적이 없었다. 오직 독서만을 매우 즐겨 대의를 모두 깨달았다. 소장하고 있는 자집류가 거의 수백 가에 이르렀는데, 각각 그 정화를 열람하고 거두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겨 새로운 책이나 알려지지 않은 서적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돈을 내어 구매하고, 구득하고 나면 등불을 켜고 읽다가 날이 새기도 하였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순수하고 맑고 고우며 격률이 절로 높아 자못 위진(魏晉)의 풍도가 있었다. 당시의 문인들이 “우리 동방의 왕자공손들 중에 일찍이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⁶⁹⁾

- 임사홍, 월산대군 신도비명

임사홍은 월산대군의 장서벽(藏書癖)과 독서에 대한 깊은 애호, 그것을 문장으로 발휘한 솜씨를 고평하였다. 월산대군의 문집인 『풍월정집』에 대해 성종의 명을 받고 서문을 찬술한 어세겸 역시 그를 하간현왕에 비의하며 『전한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다.⁷⁰⁾ 임사홍은 월산대군이 화려한 것을 싫어하는 대신 오직 서적에 대한 깊은 애호[耽嗜]를 보였으며 독서를 하면 대의를 깨닫는 높은 학식의 소유자임을 칭송하였다. ‘已了大義’는 심상한 표현이기는 하나, 명초 관각문학을 주도한 ‘삼양(三楊)’ 중 한 명인 양사기(楊士奇)의 글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⁷¹⁾ 임사홍의 경우 찬술한 신도비명 내에서 양사기의 글을 학습한 흔적이 종종 보인다.⁷²⁾ 이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원문 가운데 ‘所藏子集, 動至數百家’부터 ‘發爲詞章’까지의 상당부분을 명초의 관각문인 송렴(宋濂)의 글에서 대거 차용하였다는 점이다.

69) 임사홍(2), 앞의 글, “傳曰: ‘仁者壽’然而壽者不必仁; 仁者未必壽。顏短跖長, 臣之未究其理久矣。今於月山大君, 益有所憾焉, 而殊悵悵不能已者也。 (…)

大君雅性冲澹, 不喜紛華, 於聲樂鷹犬等事, 未嘗留意。獨耽嗜書史, 已了大義, 所藏子集, 動至數百家, 各覽其菁, 而掇其華, 猶以爲不足, 聞有新書隱編, 必購求得之, 既得之, 必篝燈讀之, 或至達曙。發爲詞章, 精醇清婉, 格律自高, 頗有魏晉風, 一時文人詩士, 莫不歎服曰: “吾東方王子公孫, 所未曾有也。”

70) 어세겸, 『風月亭集』, <風月亭集序>, “昔漢諸侯王, 前後百數, 率多驕奢失道。而獨河間王德, 東平王蒼, 好學樂善, 卓爾不羣, 以享茅土, 其學學六藝, 對三雍, 詔策所問, 推道術而言, 文約指明。”

71) 양사기, 『東里續集』 권42, <故蒲州稅務大使陳先生墓碣銘>, “自幼警敏, 有志操, 初入小學讀書, 已了大義, 十歲能賦詩, 驚其座人。”

72) ‘顏短跖長’ 역시 양사기의 글에서 용례가 보인다. 양사기, <梁用之墓碣銘>, “理有蓍蓍, 爲善罔祐, 顏短跖長, 從古則有, 從古則有, 善者徒傷, 尙有傳者, 其永不忘。”

所藏子集, 動至數百家, 各攬其菁, 而掇其華, 猶以爲不足, 聞有新書隱編, 必購求得之, 既得之, 必篝燈讀之, 或至達曙. 發爲詞章, 精醇清婉, 格律自高, 頗有魏晉風
- 임사홍, 월산대군 신도비명

所藏子集, 動至數百家, 各攬其精, 而掇其華, 聞有僻書隱牒, 不憚道里之遠, 必購得之, 既得, 必篝燈讀之, 達旦不寐. 發爲詞章, 龐蔚炳朗, 毅然有不可奪之.
- 송림, 『文憲集』 권18, <大明故中順大夫禮部侍郎曾公神道碑>(묘주: 曾魯)

‘菁’과 ‘精’ 등 의미가 상통하는 글자 일부를 바꾼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표현과 의경 전개 순서가 일치하여 도습의 혐의를 피할 수는 없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서거정이 원말명초의 최신 서적을 학습한 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표현을 전고인양 자신의 글쓰기에 도습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⁷³⁾ 임사홍은 성종대에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종의 서용을 받으며 월산대군의 문집 서문과 신도비명을 모두 창작할 정도로 문학적 능력에 대한 신임을 받았다. 그 문집이 현전하지 않아 관각문학의 특징을 엿볼 길이 요원하지만, 서거정과 마찬가지로 관각의 문학적을 오래도록 역임하는 과정에서 명초의 최신문학서적을 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학적 권력을 유지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송림의 글을 도습한 것은 독서와 문예 취향이 높은 종친을 ‘하간현왕’이라는 규범적 인간형에 비견하는 것은 식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기에, 새로운 표현을 강구하던 중에 범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IV. 왕실의 인물을 바라보는 ‘15세기’의 시선

15세기 관각문인들의 시선 속에서, 종친들은 고귀한 혈통에서 비롯된 특유의 기품의 소유자로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종친이라는 존재를 통해 세종과 성종의 태평성대를 떠올리고 그 공덕과 왕화를 찬양하기도 한다.

73) 구슬아, 『徐居正 散文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184~185면.

이상의 묘도문자에 묘사된 종친의 면모, 이를테면 타고난 자질과 뛰어난 도덕성과 신중한 성품, 일찍부터 독서에 몰두하는 영민함, 왕실 어른을 향한 지극한 효심,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학문에의 침잠은 모두 백성의 부모이자 효치를 숭선수범해야 할 존재인 군왕이 갖추고 있는 자질⁷⁴⁾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군왕의 행장이나 묘도문자에는 그와 같은 비범한 자질이 발현된 구체적 결과로서 치적과 여러 일화가 동원되는 반면,⁷⁵⁾ 종친의 묘도문자 찬술자들은 비범한 자질에 대한 찬양의 이면에 군왕과 종친들의 삶의 분기를 명확하게 서술하기 위해 더더욱 전형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공통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영웅대군은 세조의 명에 따라 1463년 『명황계감』의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한 공로⁷⁶⁾가 있지만 묘도문자에는 이와 같은 일화가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바, 서거정이 찬술한 밀성군의 신도 비명을 제외하고 다른 묘도문자에는 종친들의 정치적 업적 내지 공적이 일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종친 묘도문자의 문학적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핵심은 각 인물들이 실제로 이룩한 공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혈통과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왕실의 위계적 질서에 순응하며 안정된 정치에 기여하는 규범적 인물형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⁷⁷⁾

15세기의 관각문인들은 종친의 삶을 ‘군왕의 정신적 의지처’라는 사적이고 정서적인 방향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왕실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 효도, 충성 등의 노력을 고평하였다. 이는 공신 등 사대부들이 시귀(蓍龜)이자 주춧돌과 같은 존재로 표상되는 것과 달리⁷⁸⁾ ‘금지옥엽’으로서 또다른 측면에서 왕실을 옹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 결과 묘도문자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투식성이나 상투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달리 서술 흐름이나 표현이 반복된다. 그 대신, 실록 등에는 미처 담기

74) 이은영, 앞의 논문, 2011, 261~263면.

75) 이은영, 위의 논문, 2011, 264면.

76) 『세조실록』 권30, 1463년(세조 9) 5월 15일.

77) 이은영, 앞의 책, 2004, 63면; 167면.

78) 서거정, 『四佳文集』補遺권1, <有明朝鮮國精忠出氣敵愾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春秋館事光山府院君贈諡于靖公金公神道碑銘>, “民思龜筮, 國倚柱石.”

지 않는 왕실 가족의 내밀한 감정과 친목의 이야기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다른 종친 및 그 종친의 후손들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위계 질서를 준수하고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군왕의 정서적 보상과 후대까지 전해지는 명예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15세기 종친 묘도문자의 경우 종친들의 삶이 조선전기의 태평성대와 관련하여 낙관적이고도 풍류 넘치는 여유로 점철된 것으로 묘사되며, 그 과정에서 군왕의 사적 감정을 보여주는 일화도 동원된다. 반면,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 언급하지 않았으나 『종반행적』 권2에 수록된 성종의 후손 의천군(義泉君)의 묘갈명과 영천군(永川君)의 묘지명(이상, 찬술자 송인), 금산군(鎭山君)의 신도비명(찬술자 송시열) 등 16세기 이후에 찬술된 종친 묘도문자를 살펴보면 군왕과 종친 사이의 사적 일화는 담겨 있지 않은 대신 왕실이나 국정을 걱정하는 종친들의 우국충정 등 규범적 면모가 한층 더 강조되어 있다.⁷⁹⁾

많은 관각문인들이 명문거족 출신으로서 자기 가문의 명망과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15세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종친들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 시선은 단지 묘주의 긍정적인 부분을 칭송하는 묘도문자로서의 장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는 아닌 듯하다.

일례로 주계군 이심원은 임사홍의 조카로서, 성종에게 자신의 고모부인 임사홍에 대해 탄핵하는 등 성종대 훈신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⁸⁰⁾ 1504년 그가 사망하고 230여 년이 흐른 뒤에 미수 허목은 『주계군갈음기(朱溪君碣陰記)』에 이와 같은 주계군의 충정에 대해 서술한 뒤, 은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떠나가거나 거짓으로 미친 척한 미자(微子), 기자(箕子)와 같은 행적을 보인 분도 있지만 간언하다 죽음을 당

79) 의천군과 영천군의 묘도문자에는 일화나 공적이 수록되지 않았으며, 송시열의 신도비명에는 금산군이 임진왜란에서 왕실을 호위한 모범적 행적과 관련한 일화가 대화체와 함께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송시열, 『종반행적』 권2, <贈典祿大夫行承憲大夫鎭山君贈諡忠貞公神道碑銘并序>, “諱誠胤, 字景實, 年十五, 例授鎭山守, 二十三, 值倭奴之亂, 青原泣曰: ‘王室在難, 主上播越, 吾以宗臣, 病不得從衛, 汝二子行矣.’ 公退謂其兄曰: ‘大人有疾, 兄弟不可俱往. 我只應單行.’ 遂泣辭, 追及上於西郊. 翌日, 路上聞廟社主埋安路次, 公駐馬痛哭曰: ‘吾將叩馬爭之, 不得則退守埋安處死, 不忍去也. 國家當與存亡, 豈有獨以國遷之理乎?’ 同列或止之, 至有大悖者, 公聲益厲.”

80) 『성종실록』 권92, 1478년(성종 9) 5월 8일.

한 비간(比干)과 같은 분도 있다고 칭송하며 이심원의 충정과 용기를 비간의 지성(至誠)에 비의하였다.⁸¹⁾ 이와 같은 후대의 작품과 비교할 때, 15세기 종친의 묘도문자에는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태평성대만이 그려져 있을 뿐 이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갈등,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왕실의 기존 정책에 반발하거나 비판을 가하던 종친들의 목소리는 사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문제적 종친들의 묘도문자 창작은 도외시하거나 종친들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포퓰 자체를 외면한 한계를 드러냈다. 15세기 관각문학의 이와 같은 한계를 자각한 김종직 이후의 문인들이 16세기 관각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한 것은 아닐까.

81) 허목, 『중반행적』 권1, <朱溪君碣陰記>, “昔當殷之亡, 微子去之, 箕子佯狂爲奴, 比干諫而死. 孔子稱殷有三仁焉, 三仁之行不同, 而其心出於至誠, 故孔子稱其仁. 若公子, 可謂比干之仁也, 亦至矣.”

참고문헌

1. 자료

『宗班行蹟』(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奎2370-v.1-4).

2. 단행본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1998.

원창애, 『조선왕실의 계보와 구성원』, 세창출판사, 2018.

이은영, 『祭文, 양식적 슬픔의 미학』, 대학사, 2004.

3. 논문

강계훈, 「조선전기 墓誌銘에 나타난 宗親職制 운영」, 『서울과 역사』 제7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1, 53~91면.

구슬아,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官廳 題名記) 창작의 시대적 맥락」, 『국문학연구』 제36호, 국문학회, 2017, 119~156면.

_____,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草創과 潤色,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글쓰기 방식 연구」, 『규장각』 제5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33면.

_____, 「徐居正 散文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159~202면.

박진, 「조선 초기 王親婚과 王室 妾子孫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사학보』 제48호, 고려사학회, 2012, 219~253면.

성봉현, 「장서각소장 왕실보첩류의 종류와 현황」, 『한국학논집』 제4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121~170면.

신복호, 「관각문학의 개념과 그 유형 및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145~186면.

이규철, 「임영대군과 오산군을 통해서 본 조선초기 중친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제20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5~114면.

이은영, 「朝鮮後期 御製 祭文의 規範性과 抒情性」,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103~143면.

_____, 「조선시대 군왕 행장의 찬술 방식과 미의식」, 『동방한문학』 제49집, 동방한문학회, 2011, 251~287면.

이종묵, 「風月亭 月山大君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3집, 한국한시학회, 1998, 269~298면.

- _____,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제8호, 국문학회, 2002, 41~83면.
- 한충희, 『朝鮮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한국학논집』 제2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5, 187~222면.
- 홍재석, 『조선전기 王子들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외교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wangak Literature
of 15th century Joseon through *Jongbanbaengjuk*(宗班行蹟)

Koo, Seul-Ah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wangak literature from the epitaph of the 15th century royal family, which were included in *Jongbanbaengjuk*(宗班行蹟).

The royal family[宗親] is a paternal relative of the king and a special status that is plac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servant. The epitaph of the royal family in the 15th century were written by influential Gwangak writer such as Seo Geo-jeong(徐居正), Lim Sa-hong(任士洪), Hong Gwi-dal(洪貴達), and Nam Gon(南袞).

The epitaph on the 15th century's royal family in *Jongbanbaengjuk* show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se works include praise and honor for the noble royal lineage. In particular, they tend to praise King Sejong and King Seongjong's political stability. This is the result of the 15th century's royal family functioning as human evidence to remind the to them, who have led the booming period of Sejong and Seongjong, to the Taepyeongseongdae(太平聖代).

Second, it describes the king's private feelings toward his family without hesitation. In particular, it features anecdotes that highlight the family love of the king and vividly depict them.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judging that the insertion of personal anecdotes does not undermine the image of the king as generous parents of the people.

Third, on the other side of the normative life of the royal family, it shows an anecdote emphasizing that they are people who are immersed in reading and are born with a deep knowledge of art. By repeating the stereotyped expression, the writers present to the reader the image of a normative figure who conforms to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royal family and contributes to political stability.

The 15th century Gwangak writer recall the Joseon's peaceful times through th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20.

exemplary lives of royal families. However, they did not create the epitaph of the problematic royal family, which opposed or criticized the royal family's policies, and turned a blind eye to its historical assessment. This contrast is in line with other Gwangak literature in the 15th century.

keywords: early-Joseon, royal family, epitaph, *Jongbanhaengjuk*(宗班行蹟),
Gwangak literature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